

# 우리동네 앞집 할머니, 뒷집 아저씨가 영화 주인공

평범한 동네 주민들이 영화배우가 됐다. 주민들이 직접 스토리텔링을 통해 영화화 할 수 있는 대본을 만들고 촬영현장에서는 생활 연기를 펼친다. 영화를 완성한 후에는 마을 영화제를 개최해 마을 문화예술공동체를 선보인다.

광주 지역 최초로 주민들이 마을영화를 제작하고 배우로 직접 영화에 출연하는 '간뎨골 마을영화'가 올해 5회를 맞았다.

중흥2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사회적 기업 필름에이지(대표 윤수안)가 주최하는 '간뎨골 마을영화'는 중흥동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마을영화 사업으로 광주시 복구 한가운데 위치한 중흥동 일대를 의미하는 옛지명 '간뎨골'에서 명칭을 따왔다.

주민들은 벌써 4편의 영화를 찍었다. '간뎨골 사람들' (2016), '춘첩야' (2017), '봉사왕' (2018), '기억저편' (2019) 등이다.

'간뎨골 사람들'은 평범한 가정주부인 미진이 친구와 동네 주민들의 도움으로 가수의 꿈을 이루는 과정을 그렸으며 '춘첩야'는 중흥 2동 마을 청소를 도맡아 하는 자활근로자 김춘첩씨의 이야기를 담았다. '봉사왕'은 거역의 상금이 걸린 광주시의 봉사왕 선발 소식에 봉사활동에 매진하게 된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이며 '기억저편'은 재개발 바람이 불어온 중흥동, 자식들이 치매에 걸린 어머니의 돈을 노리고 찾아오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내용으로 한다.

이 사업은 중흥2동 행정복지센터의 제안으로부터 시작했다. 이미 화순과 나주에서 마을영화를 제작한 경험이 있는 필름에이지 윤수안 대표에게 주민들이 직접 영화를 제작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해보자고 제안한 것.



'간뎨골 마을영화'가 올해로 5회를 맞았다. 사진은 지난해 선보인 '기억저편' 촬영모습.

## 올해 5번째 '간뎨골 마을영화'

중흥2동 주민자치위·필름에이지 제작

올해는 시즌제 시트콤... 배우 모집 중

10월 마을영화제... 유튜브 채널 상영

주민 배우 모집부터 연기수업, 영화 촬영 등 영화 제작 전반을 기획하고 이끌어가는 윤대표는 누구나 꿈꾸지만 현실에 의해 숨어버린 또 다른 자아를 꺼내 발견하는 경험을 중흥동 주민들과 나누고 싶어 '간뎨골 마을영화'를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단편영화 3편을 잇따라 선보여 윤 대표는 지난해 80분짜리 장편영화를 제작했다. 그동안 만들



었던 마을영화들을 보완해 콘텐츠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다.

매년 영화에 출연하는 주민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주민들의 열정과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올해는 시트콤을 제작해 선보일 계획이다. 주인공 수가 적은 영화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트콤으로 결정한 것이다.

윤 대표는 "지난해 영화 제작 당시 주인공 수가 한정돼 있어 참여하지 못한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꼈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간뎨골영화제'의 변화를 모색하며 중 시트콤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시트콤은 시즌제로 제작될 예정이라 더욱 눈길을 끈다. 오는 10월 시즌1을 선보이고, 내년엔 상·하반기에 나눠 시즌 2, 3을 제작해 공개할 계획이다.

이번 시트콤은 '황혼욕야', '워킹맘 이야기', '코로나 19로 변화된 직장 분위기', '결혼 이야기' 등을 주제로 주민들이 겪는 일상의 소소한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 나갈 예정이며 10분 분량의 시트콤 6편이 관객들을 찾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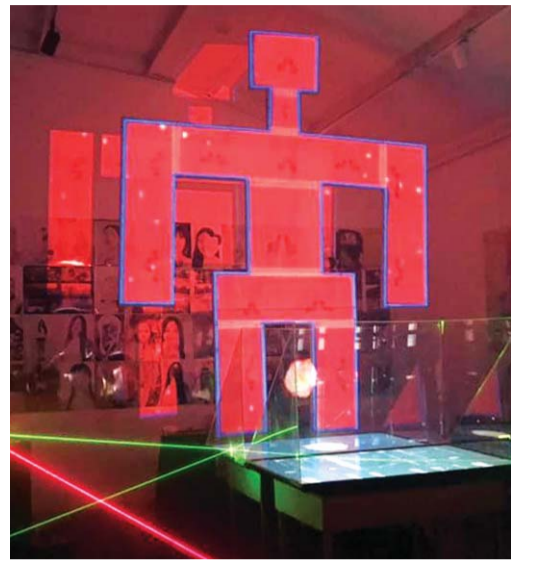
촬영은 주로 주민들의 집이나 주민들이 운영하는 점포에서 진행하며 흥신소, 병원, 상담소, 주점, 미용실, 인력사무소 등 중흥동 내 모든 공간을 활용한다.

'간뎨골 마을영화'는 현재 중흥2동을 중심으로 시트콤에 출연할 주민 배우를 모집하고 있으며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영화 제작은 7월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8월에는 스토리텔링 작업과 연기 수업을 한다. 그리고 9월에 8회차 정도의 촬영 후 편집을 거쳐 영화를 완성한다.

이후 10월 '간뎨골 마을영화'의 한해를 마무리하는 마을영화제가 열린다. 마을영화제에서는 주민들이 모두 모여 영화를 함께 보고 소감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되며 공개된 작품들은 필름에이지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아이로봇'

## 삶이 꽃처럼 아름답다

미디어아트 신도원 '나는 꽃이다' 전 20일까지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미디어아트 작가 신도원 개인전이 오는 20일까지 광주시 남구 양림동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 주제는 '나는 꽃이다'(I AM FLOWER). 전시에서 선보이는 50여점의 작품을 통해 신 작가는 우리의 삶이 꽃처럼 아름답다는 사실, 각자의 개성과 생각이 존중되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전시작들은 작품과 전시를 관람하는 관객이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고 반응하는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로 흥미롭다.

'unconnect 넘버3'은 신 작가가 지난 2년간 홀로그램을 연구하고 제작한 작품으로 실시간 홀로그램 작품에 관객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매쉬 스크린을 이용한 '아이로봇'은 기존 작품을 다시 연출한 작품이다. 전시장 중앙에 작품을 설치하고 레이저와 포그 등을 이용해 사운드와 함께 박진감 있는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를 보여준다.

작가는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지 고민하고 작업한 작품들"이라며 "예술가로서 삶의 가치를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서로 위로할 수 있는 전시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전시는 오전 9시부터 관람할 수 있으며 오후 7시부터 9시까지는 미디어아트 라이브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홍익대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조선대학교 대학원을 수료한 신 작가는 2020광주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벨트사업 감독을 맡고 있다.

2016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감독, 우즈백, 스리랑카, 인도 총리 방한 기념 청와대 공연 등을 진행했으며 유네스코 창의도시 프랑크 양기영레벨 2017 페스티벌에도 초청받았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ACC에서 지역 특색 담긴 문화상품 만나요

8개 제작업체와 입점계약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최근 문화상품 제작 8개 업체와 입점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 체결로 아시아문화전당에서도 광주·전남의 특색이 담긴 지역상품을 만날 수 있게 됐다. 또한 다양한 홍보 채널을 매개로 문화상품을 소개하는 것은 물론 이들 업체와 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위탁판매계약 체결식에는 박태영 전당장 직무 대리와 행사주관사 (주)원트리즈뮤직 노종찬 대표를 비롯해 역서사소 김진아·김효미 공동대표, 비즈플랜지안 김혜련 대표, 좋은디자인 김은영 대

표, 모과잡화점 한다빈 대표, 올리브퍼니처 박상일 대표, 서현크래프트 문서현 대표, 도예공방 The자기 정지운 대표, 샤르메 문정은 대표 등 선정 업체 대표와 작가 등 15명이 참석했다.

중순부터는 아트상품 문구류, 원목 수제품, 다기세트 등을 만날 수 있다.

한편 ACC는 새로운 비대면 홍보와 판매 방법도 선보였다. 무인으로 운영하는 휴게공간 'ACC 칼쳐슈 소품'을 문화창조원 로비에 설치해 문화상품을 판매중이다. 이곳 상품은 QR코드를 통해 온라인 '스마트 스토어'와 연동돼 휴대폰 결제 후 택배로 받아볼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 모두가 함께... 공존의 어울림

정선영 작가 '탄생' 전 7월31일까지 전남여성문화박물관

전남여성가족재단(원장 안경주)이 2020 제 1회 '女新 나르샤'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작가의 전시를 시작했다. 그 첫번째 전시는 정선영 작가의 '탄생 The Birth-공존을 꿈꾸다' 전으로 오는 7월 31일까지 전남여성가족재단 2층 전남여성문화박물관에서 열린다.

정 작가는 선명한 색채와 밀도 있는 구성으로 작품성을 높게 평가받았으며 전시를 통해 남도의 자연 속에서 인간의 삶을 마주하며 시작되는 '탄생'과 모두가 어우러져 살아가는 '공존'에 대해 이야기한다.

특히 '불의 정원', '구름 정원', '새들의 정원', '꿈꾸는 정원' 등 정 작가가 선보이는 '정원(庭園)'은 각각각색의 동물과 식물들이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는 이상향과 같은 공존의 공간이다. 화려한 색감으로 눈길을 끄는 작품 속에는 인간만큼 소중한 존재들이 생명들이 저마다의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다.

정 작가는 홍익대학교 광고디자인과, 광고홍보대학원을 졸업했다. 재단은 공식 유튜브, 네이버



'꿈꾸는 정원'

블로그, 밴드,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정 작가의 작품을 소개한다. 이와 함께 지역의 청년단체와 협업해 작가가 직접 작품을 설명하는 온라인 도슨트도 선보인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SINCE 1982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